

# 司牧研究

제48집 (2022/여름)

교회법 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司牧研究』는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펴냅니다.

## 발 간 사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대학 강의마저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고, 본연구소가 그동안 진행해온 월례 세미나와 연례 학술 심포지엄 역시 중단된 이 시기에 그나마 예년 여름호와 마찬가지로 교회법을 전공하고 학교, 본당, 교구청 등 교회 내의 각 분야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신부님들이 땀 흘려 연구한 결실을 모아주셨습니다. 전체적 주제의 통일성은 다소 미흡하지만 한국 교회가 현재 직면해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다양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회원이며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인 김현조 신부는 “수도회 ‘총회 구성’의 변천과정과 한국 내 수도회 ‘총회 구성’에 관한 규정들”이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각 수도회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는 총회(교회법 631조 1항 참조)가 올바르게 구성되고 진행되기 위하여 그 역사적, 교회 법제사적 특징을 정리하고 현재 한국 내 각 수도회의 규정을 면밀히 비교, 검토함으로써 각 수도회의 총회가 그 회의 고유한 카리스마에 맞추어 그 수도회 전체를 대표하고 사랑 안에서 진정한 일치의 표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법 석사이며 전주교구 오수 본당 주임인 백재욱 신부는 “조선 후기 천주교회와 국가의 관계 — 교회 공법의 기원을 바탕으로”라는 논문을 통해 ‘교회 공법’(Ius Publicum Ecclesiasticum)의 개념과 역사적 기원을 설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 천주교회와 국가의 관계, 특히 유교적 정교일치를 배경으로 하는 조선시대에서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소개된 천주교회가 지닌 천부적이고

고유한 권리(*Ius proprium ac nativum*)가 어떻게 서로 충돌하면서도 인간 존엄과 평등,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개념을 발전시켜 나아갔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법 박사이며 수원교구 장애인사목위원장인 김길민 신부는 “대세와 임종 세례, 보충 예식의 타당성에 대한 교회법적 평가”라는 논문을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대세(代洗)와 그에 따른 보충예식의 여러 문제들, 즉 약식 세례, 사적세례, 임종세례 등 용어상의 혼란으로부터 시작되어 현재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지적하며 그 올바른 정립을 위해 보편교회와 한국교회의 관련 문서를 바탕으로 신학적, 교회법적, 사목적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서울대교구의 사제이며 교회법 박사 과정 중인 오석준 신부는 “낙태 범죄의 처벌과 그 사면에 대한 고찰”을 통해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우리 사회에 던져진 낙태죄의 폐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는 가톨릭교회 안에 형법이 존재하는 이유로부터 출발하여, 현행 교회법 안에서 낙태죄에 대한 처벌과 그 사면, 특히 한국교회의 개별교회법 규정에 따라 모든 사제들에게 부여된 사면권이 그 정신에 합당하게 행사됨으로써 참회하는 사람이 그 죄로부터의 해방과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끌어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교회법 논문들에 아울러 본교의 전례학 교수인 윤종식 신부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점점 확산되고 그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 및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비대면 미사참석”에 대하여 살레시오수도회 사제인 아킬레 마리아 트리아카(Achille M. Triacca)의 “텔레비전 방송 미사의 영상과 음향 — 문제제기, 신학·전례적 의미 그리고 사목적 가치”라는 글을 번역함으로써 지극히 거룩한 성찬을 결코 대신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 병자와 노인들에게 영

적 도움이라는 긍정적 요소도 있는 방송 미사에 대해 그 제작진에게 필요한 실천적 제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교의 철학 교수인 김형수 신부는 자신의 전공인 중세 철학자 니콜라우스 쿠자누스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 게르하르트 베어(Gerhard Wehr)의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신비주의자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라는 글을 번역하여 소개함으로써 중세를 마감하고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학, 철학, 천문학, 교회법에 능통한 학자이며, 무엇보다 신비주의적 신앙인이자 사목자였던 쿠자누스의 생애와 그의 사상에 영향을 준 배경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한 연구의 결실인 논문과 번역을 모아주신 신부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2년 6월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장  
이범주 신부

## 司牧研究 제48집 — 교회법 편 2022 여름

차 례

발간사/ 3

이범주

## [특집] 교회법

- 수도회 ‘총회 구성’의 변천과정과 한국 내 수도회 ‘총회 구성’에 관한 규정들/ 8 김현조  
 조선 후기 천주교회와 국가의 관계 — 교회 공법의 기원을 바탕으로/ 41 백재욱  
 대세와 임종 세례, 보충 예식의 타당성에 대한 교회법적 평가/ 68 김길민  
 낙태 범죄의 처벌과 그 사면에 대한 고찰/ 113 오석준

## [번역]

- 텔레비전 방송 미사의 영상과 음향  
 — 문제제기, 신학·전례적 의미 그리고 사목적 가치/ 168  
 아킬레 마리아 트리아카, 윤종식 옮김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신비주의자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199  
 게르하르트 베어, 김형수 옮김

## [부록] / 215

- I.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정관/ 217  
 II.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 운영 규정/ 223  
 III.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학술지 편집 및 심의 규정/ 226  
 IV.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연구위원 명단/ 228  
 V.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정기 학술 심포지엄 연보/ 229  
 司牧研究 총목차(1994-2021 겨울)/ 231

## Contents

---

Editorial Preface/ 3

*Rev. Lee, Bumjoo, J.C.D.*

### [Special Issue] Canon Law

A Study on the Historical Change of the Constitution of the General Chapter of Religious Institutes and the Constitutions of Religious Institutes of Korea/ *Rev. Kim, Hyuncho, J.C.D.*

The relations between Catholic Church and State in the late Joseon Dynasty: Focusing on the historical origin of Public Ecclesiastical Law/ *Rev. Baek, Jaewook, J.C.L.*

A Canonical evaluation on the validity of the simple baptism, deathbed baptism and supplementary rite of baptism/ *Rev. Kim, Kilmin, J.C.D.*

Punishment on the crime of abortion and discussion on its absolution/ *Rev. Oh, Suk-joon, J.C.L.*

### [Translation]

Images and sounds of the Mass on TV/

*Achille M. Triacca, S.D.B.*  
*tr. by Rev. Yun, Jongsik, S.L.D.*

Medieval and Renaissance mystic Nicholas of Cusa/

*Gerhard Wehr*  
*tr. by Rev. Kim, Hyoungsoo, Ph.D.*

### [Appendixes]/